

# 독일 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이 썼던 무지개 깃발을 해석해보자

심장중의강철



verbum domini maneat in eternum  
die ist das zeichen des ewigen  
bundes gottes

당시 농민군이 썼던 깃발.

2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해석해보자면

verbum Domini manet in aeternum(위)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die ist das Zeichen des ewigen Bundes Gottes(아래)

이는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1]의 표징[2]이다.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1] 하느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맺은 구원언약을 뜻함.

[2]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대충 하느님의 능력등을 보여주는 '표식'정도됨.